

[한라산 학술 대탐사 연재 200회]제주의 가치 찾아 대장정

특별취재팀 기자

입력 : 2004. 06.18. 00:00:00



▲우도에서 바라본 오름군.

○... 한라일보가 대하기획으로 전개하고 있는 한라산 학술대탐사가 연재2백회를 맞았다. 제1부 '생명의 원류/하천과 계곡' 탐사(166회)에 이어 제2부 오름기획인 '한라대맥을 찾아서'(33회)가 매주 연재중에 있다. 탐사는 지난 98년 12월 시작돼 2004년 6월 현재 6년째 계속되고 있다. 한라산대탐사 연재 2백회는 언론의 탐사보도로는 최장기 기획이다. 그동안 한라산에 대한 총체적인 탐사는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한라일보가 국내 학계, 언론계를 통틀어 처음으로 한라산을 집중 조명하기 위한 한라산생태학술대탐사에 나선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한라산을 통해 제주의 가치찾기를 위한 시도였다....○

△제1부 '생명의 원류/하천과 계곡'

하천과 계곡탐사는 지난 98년 12월 13일 첫 장도에 올라 2003년 7월 한라산 백록담 담수조사까지 만 4년 8개월 동안 계속됐다.

하천과 계곡탐사는 특별취재팀과 식물, 지질, 수자원, 곤충, 민속, 역사, 산악, 영상 등 관련 분야의 명망있는 전문가를 탐사위원으로 위촉, 한라산 해발고도 1,000m 이상 고지에서 발원하는 하천을 대상으로 하천에서부터 원류까지 전 구간을 직접 답사하는 새로운 탐사방법으로 전개됐다.

탐사는 무수천을 시작으로 서귀포시 중문에 위치한 색달천(중문천)에 이르기까지 16개 하천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하천구간 도보답사 거리만 4백25km. 등산로와 하천탐사구간의 왕복거리까지 포함하면 실제 탐사거리는 1천km가 넘는다.

탐사내용은 99년 신년호부터 2003년 5월까지 매주 한차례씩 특집지면을 통해 1백66회 연재했다.

탐사는 수많은 자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올림으로써 탐사보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 모두 제주와 한라산의 가치를 선양하는 것이었다.

한라산 탐사는 자연생태 취재에 그치지 않았다. 계곡과 하천은 도민들의 삶의 안식처였다. 그 안에는 제주인들의 역사와 문화, 애환이 녹아 있었다.

식물분야의 경우, 제주도 남부지방의 대표적 하천인 효돈천(서귀포시) 상류에서는 멸종위기 특산식물 60여종이 무더기로 자생하는 암극식생 군락지를 처음 발견하는 개가를 올렸다.

그동안 계곡으로만 인식돼왔던 제주 최대 절경지 '영실'(해발 1000m)이 한라산 백록담 분화구 보다도 이전에 분출된 분화구라는 가능성을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해 공식 제기, 제주도 화산체에 대한 재조명 계기를 마련했다.

서귀포시 중문 해안에서는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왔던 국내 최대규모의 주상절리군이 탐사를 계기로 그 실체를 드러냈다. 약 1km에 걸친 이 주상절리군은 2000년 4월 문화재청이 국가문화재로 지정한 포항 '달전리 주상절리대' 보다 그 규모가 10배에 달할 뿐만아니라 세계적으로 드문 학술적 가치와 경관을 갖고 있는 자원으로 비로소 밝혀졌다.

제주시내를 관통하는 '병문천' 중류 하상 해발 800m에 위치한 '구린굴'은 굴의 천정이 무너져 내리면서 하천화가 진행되는 사실을 확인, 하천 형성원인의 한 단초를 입증했다.

한라산 최대 절경지인 영실 동남쪽 해발 1530m에서는 제주도내에서 가장 오랜 사찰인 존자암의 옛 터로 추정되는 '수행굴'을 찾아냈다. 수행굴은 제주불교의 원류를 규명하는데에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신례천 중류인 수악계곡에서는 대규모 4·3유적지를 발굴했다.

조류분야에서는 최근 제주의 명물로 떠오른 노루의 집단 서식처를 한라산 정상 아래 해발 1천 4백m 지경에서 처음 확인했으며 제주도내 하천이 천연기념물 원앙의 안식처임이 밝혀졌다.

탐사팀이 발굴하거나 소개한 경관자원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무수천 중류의 진달래소, 천미천의 사행천, 효돈천의 백록계곡, 산벌른내, 탐라계곡의 이끼폭포는 그 일부 사례들에 불과하다.

하천의 파괴실태도 고발했다. 하천은 치수대책의 하나로 전개되고 있는 하상정비사업으로 인해 귀중한 용암자원이 무차별 파괴되고 있었다. 무차별적인 하

천정비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탐사는 많은 도민들의 관심과 격려속에 진행됐다. 초등학생에서부터 동호인 그룹에 이르기까지 수백명이 탐사에 실제 동행하기도 했다.

△제2부 '한라대맥을 찾아서'

한라산학술대탐사단은 제1부 '생명의 원류/하천과 계곡' 탐사를 마무리짓고 2003년 9월부터는 제2부 오

름탐사에 착수했다. '한라대맥'은 한라산 정상을 중심으로 동쪽 우도에서 서쪽 차귀도를 잇는 제주섬의 최장축 라인으로 70여km에 이르며 오름이 집중 분포돼 있는 공간이다. 탐사단은 제주섬 최장축을 '한라대맥'이라 명명했다. 탐사는 2003년 9월 20일 북제주군 우도에서 시작됐다.

'한라대맥'에는 제주도 전역에 분포하는 3백60여개의 오름 중 1백여개가 집중 분포하고 있으며 이 오름군이 제주의 특징적 경관과 함께 거대한 맥을 이루고 있다. 또한 제주인의 삶과 애환, 신화·역사·문화유적이 한라대맥을 따라 다양하게 녹아있다.

생태학적으로는 제주 최대의 철새도래지와 습지가 밀집돼 있으며 해발고도 별로 난대림에서부터 한대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식생군락이 분포, 천혜의 생태계를 간직하고 있다.

'한라대맥' 탐사는 우도에서 한라산 정상, 차귀도에 이르는 최장축을 따라 좌우 반경 5km 구간을 도보로 이동하며 한라산과 제주섬의 가치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

탐사는 '한라대맥'을 우도~송당, 송당~5.16도로, 국립공원, 영실~이시돌, 새별오름~차귀도 등 5개 구간으로 나눠 도보답사하고 있다.

탐사에는 지질, 역사, 인문지리, 풍수, 식생, 조류, 산악 등 각 분야에서 활동중인 전문가들이 특별취재팀과 함께 대거 참여하고 있다. 한국언론재단은 제1부에 이어 제2부 '한라대맥을 찾아서' 탐사도 공식 후원하고 있다. 2부탐사는 현재 33회 연재됐다. 2부는 약 1백회 가량 연재할 예정이다.

오름탐사도 그동안 전혀 발굴되지 않았던 가치들을 발굴하고 조명하는 성과를 얻어내고 있다. 특히 베일에 가려져온 서검은오름의 지질, 역사, 식물학적 가치를 집중 조명함으로써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현재 각계의 전문가들이 서검은오름을 연구테마로 설정, 정밀 조사중에 있다.

오름 일대의 생태적 교란과 훼손·파괴현장도 속속 드러났다. 제주의 제1경인 성산일출봉 분화구를 비롯해 산굼부리 분화구의 대나무의 이상번식을 최초 보도, 현재 문화재관리청 주도로 이상번식의 원인과 처방에 대해 용역이 진행중이다.

과거 표고버섯재배장으로 활용됐던 천연숲이 망가지는 현장도 탐사를 통해 드러났다. 표고재배가 중단된 뒤 철조망 등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바람에 천연숲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충격적인 현장이었다. 제주도와 시군은 본보의 지적에 따라 전수조사와 함께 민·관·군 합동으로 철조망 등 구조물 철거작업에 본격 착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본보는 '한라대맥' 탐사를 통해 제주와 한라산에 대한 제주인의 자존을 북돋우고 대외적으로는 제주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한라산대탐사는 앞으로도 씬없이 계속된다.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